

# “디지털 혁명이 몰고 올 출판환경 변화에 대비하자”

창조정신과 개방적인 자세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노병성 | 협성대 경상학부 교수

새천년에는 활자매체의 뒤를 이어 영상매체가 지배적인 매체로 부상할 것이 틀림없다. 이런 변화에서 종이책의 생존여부는 지극히 부정적이다. 그러나 디지털화가 가져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출판영역을 다각화한다면 이 위기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새로운 천년이 시작됐다. 지난 천년은 중세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거쳐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 진입한 시기였다. 농경 중심의 사회는 산업사회로 대체됐고, 이제는 정보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 와 있다. 엘빈 토플러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동안 권력구조는 폭력에서 부로 이전됐다가 현대계에서는 지식으로 이동 중이다.

지난 천년 동안 과학발달은 인간생활을 윤택하게 해줬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과학발달은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한 자연과 인간 사이의 갈등을 야기했으며, 인간복제라는 문제를 통해 인간 자체에 대한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과학은 희망·기대·환상이라는 꿈을 우리에게 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실망과 허망, 때로는 절망을 주기도 했다. 과학은 신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가 붕괴되는 지점에서 질주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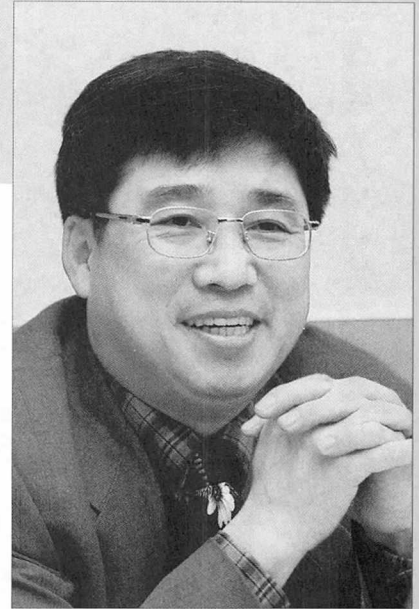
과학의 질주는 중세 봉건사회 몰락과 르네상스부터 본격화됐다. 신이 이성으로 대체되면서 인간의 다양한 창작물은 속속 탄생했고, 이제는 이성에 대한 기대도 한계가 있음을 자각이나 한 듯 감성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소위 영상문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대는 포스트모던한 조건들을 갖추면서 이성에 대한 반기를 들고 반대급부적으로 감성에 대해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 새천년을 지배할 새로운 매체의 등장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매 시기와 국면에는 항상 지배적인 매체가 존재해 왔다. 사실상 역사과정이란 지배적인 매체를 장악하려는 힘과 이에 대한 저항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배적인 매체는 기존의 제도적 구조를 따라 지식을 형성하고, 다시 권력집중을 촉발했기 때문이다. 맥루한에 따르면, 지난 천년은 문자시대에서 활자시대로 이전했다가 다시 전자매체시대로 변환했다. 양피지와 파피루스, 그리고 종이에 의존한 필사 중심의 문자시대와 인쇄술의 발명, 특히 금속활자의 발명과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술의 발달에 힘입어 활자시대로 전이됐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시대의 지배적인 매체가 출판된 도서나 신문, 잡지 등이었다는 것이다.

기계인쇄술은 인문학적 및 과학적 지식을 대중에게 보급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시각 중심의 문화를 형성했고, 선형적 인과논리·민주주의·평등·자유 등의 가치를 전달하는 데 핵심기능을 했다. 그러나 빛과 전파에 대한 인간의 통제능력 발달은 전자매체시대를 열었고, 이것은 불과 1백여년 만에 전 지구를 재부족화(retribulization)하고 인간을 복수감각형으로 복원시켰다. 과학발달은 불과 10여년만에 전 인



노병성 교수

류를 한데 묶는 네트워크 중심의 온라인 세상으로 바꾸고, 이 또한 위성에 의존한 오프라인식 네트워크로 통합될 전망이어서 다가오는 새 천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의한 영상매체가 지배적인 매체가 될 것이 틀림없다. 이 시대는 그동안 활자매체에 의한 이성중심 사고가 감성중심으로 상당부분 이전될 것이고, 매체에 의한 시공간 압축은 더욱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 출판사의 형태와 산업구조 급변할 듯

지배적인 매체 변이 및 광속도와 같은 과학기술 발달 속에서 과연 종이책은 생존할 것인가? 출판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과 같은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그리 희망적이지도, 분명하지도 않다. 지배적인 매체의 자리바꿈은 도서의 형태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활자중심 문화에 변형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며, 출판의 사회적 의미와 위상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임과 동시에 출판사의 형태와 산업구조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이미 CD-ROM이나 월드와이드웹을 통한 출

판은 출판산업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종이책을 중심으로 한 정보교환을 퇴출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도서매체가 '지식'을 '대중'에게 보급하는 역할을 했다면, 새로운 전자적 출판매체는 '사적 정보'까지 '개인'에게 전달하는 매체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종이책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새롭게 시작되는 천년 동안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인간의 상상 범위를 벗어난다. 다만 분명한 것은 종이책이 사라지기까지는 기술혁명 못지 않게 문화혁명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뿐이다.

출판산업에서 지난 10년간의 변화는 실질적으로 지난 천년간의 변화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출판의 디지털화인데, 이는 출판에 다양한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출판산업에 네트워크 모델이 등장할 것이라는 점이다. 네트워크 하에서 출판조직은 프리랜서의 채용이 증가할 것이며, 재택근무를 기반으로 한 인력구조를 갖기 쉽다. 이로 인해 사무실이 없는 출판사가 급증할 것이며, 베스트셀러 위주의 대량생산보다는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판의 디지털화로 인해 잡지나 신문 등의 출판은 더욱 더 독자를 세분화할 것이고, 이로 인해 틈새시장은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잡지나 신문은 그간 방송매체에 비해 신속성이 현저히 떨어졌으나, 이들과 동등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아울러 출판의 멀티미디어화는 출판과 방송,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 등의 경계를 허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변화는 출판정책을 주도하는 정부와 출판인 모두에게 새로운 태도와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새천년과 함께 우리 출판계에 바라는 바를 개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 요구돼

먼저 출판의 생산부면에서는 출판인의 개방적 자세가 요구된다. 앞으로 출판계에는 단일매체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출판물이 공존할 것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출판사는 창의적인 기획력을 바탕으로 동일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창구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변화하는 독자의 매체 사용습관에 부응하기 위한 출판사의 적극적인 노력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단도 될 수 있다. 개별 출판사는 내수시장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판매할 수 있는 개척정신이 필요하다. 아울러 북한과의 출판교류를 통해 민족적 이질감을 해소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의 교류를 확대하면 전세계에 퍼져 있는 한민족 출판문화권 형성에

도 기여할 수 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도 문화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획력은 부단한 창조력을 요구한다. 획일화되고 고답적인 출판인의 의식은 더 이상 새천년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에는 부적절하다. 창의적이고 상상의 자유를 지니고 있는 자, 그리고 진취적이고 변화에 능동적인 출판인만이 새천년에 대처할 수 있다.

출판유통은 지금까지 출판계의 영원한 숙제로 남아 있는 듯하다. 그러나 출판유통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된 출판유통의 대형화, 현대화 등은 출판유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 바가 없지는 않지만, 반드시 대형화가 출판유통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축소지향적이면서도 정보화를 추구하는 것이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이버스페이스의 활용은 출판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하고 있다. 뉴욕과 동경·파리·홍콩 등 거대 도시가 독자의 가상공간 안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실공간의 논리에만 집착하는 것보다는 가상과 현실공간을 아우르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독자에 대한 인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미 독자는 독자로서 존재하기보다는 사용자·이용자·소비자·수용자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독자는 일방적인 소비자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책은 애프터서비스가 필요없는 품목이어서 더욱 그런 인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새천년을 여는 마당에 필요한 것은 독자를 진정한 출판계의 파트너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현재 독서수요 창출을 위한 독서교육의 강조는 글쓰기 교육과 동시 병행적으로 이뤄질 때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글쓰기 행위는 출판 수요를 촉발하는 기저기 때문이다.

새천년 한국출판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출판인 혼자만의 것은 아니다. 정부의 제도적, 법적 정비에 대한 개방적 태도, 독자들의 미래지향적 독서욕구 등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 출판의 미래가 희망적일 것이다. ●